

아베,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 인도네시아 한인 경제 파장은?

일본 정부는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의 포문을 열었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들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 개국이 지정되어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책임자인 경제산업성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7일 공포한다고 예고하고 있어, 오는 28일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된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핵심 전략 수출 분야의 제품을 통제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을 치닫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12시(인도네시아 시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작된 대 일본 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대응

- 인니 주요신문 ‘일본의 무모한 결정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 우려

명백한 무역 보복”,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며 “국제 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인도네시아 Jakarta Post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도 ‘경제 전쟁의 선포(Declaration of economic war)’라고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JAVAFX뉴스는 ‘한일 무역 전쟁 시작, 일본이 공식적으로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라는 제목에서 인접한 두 나라 간의 무역 관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CNN INDONESIA는 “문재인 대통령은 생중계 담화문에서 일본 각료 회의가 세계적인 공급망을 손상시키고 세

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결정했다”고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들을 철회하고 대화의 길을 걸어야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단호하게 경고했다”고 문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JakartPost는 ‘문대통령, 일본의 무모한 무역 결정 비난’이라는 제호에서 “일본의 이기적인 행동은 세계적인 공급망을 붕괴시킴으로써 세계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문대통령의 담화내용을 전했다. 또한 “가해자 일본이 이 시점에서 상처를 다시 입히려한다면, 국제 규범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CNN은 홈페이지 텁 기사로 일본 정부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일본 각료 회의가 세계적인 공급망을 손상시키고 세

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결정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분쟁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수출 통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이슈로 비등점에 달한 양국의 적대감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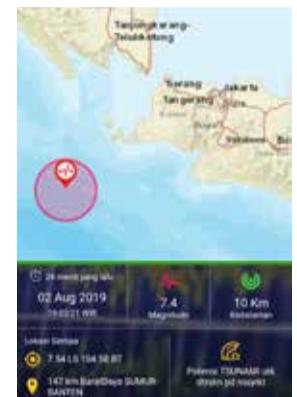
블룸버스통신 역시 일본이 지난 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더 엄격한 조치에 나섰으며, 한국은 이를 무역 보복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두 이웃 국가 간 무역 긴장이 안보협력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평기를 시사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학 교수로 재직 중인 헨리 패럴과 조지타운대학 교수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1일(현지시간) 위

<속보>

순다해협에서 7.4 강진발생... 쓰나미 조기경보

서부자와 반طن주 순다해협에서 8월2일(금) 오후 7시 3분께 규모 7.4 강진이 발생하자 지질기기상청 BMKG는 쓰나미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국가재난관리청은 반طن주민에게 고지대로 대피경보를 발령하면서 Banten, Lampung, Jawa Barat, Bengkulu 지역 쓰나미 가능성을 경보했다. 오늘 발생한 지진은 순다 해협 폐가 지진대는 유라시아 및 인도-호주 판이 충돌하는 위치에서 발생했으며, 오랫동안 주요 지진과 쓰나미를 유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



다해협 지역의 지진대는 최대 8.8 지진과 20m 이상의 쓰나미를 발생과 반طن연안에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진 전문가는 경고하고 있다. 강진이 발생하자 인도네시아 TV방송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쓰나미 조기경보 속보 방송을 하고 있다. 콤파스 신문은 해양 수산부지진전문가를 인터뷰에서 반طن쪽에 쓰나미 징후를 발견하고 모니터를 수집 중이라고 전했다. 진원지는 Banten주에서 남서쪽으로 약 147km 떨어진 해저 10km으로 남부 수마트라주에서 중부 자와 솔로까지 진동을 느꼈다. 이날 지진으로 아파트에 사는 자카르타와 수도권 주민들은 대피하느라 큰 소동이 발생했다. 또한 한인동포들도 지진에 놀라 집밖으로 나와서 한인포스트 빙드와 SNS로 피해 사항을 전달하면서 지진공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거래를 무기화했다(Japan has weaponized its trad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는 안보 불안에 따른 수출 관리라는 측면에서 정당화하고 있지만,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과 동포사회 대응책 시급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 관계 속에서 인도네시아 내의 한인 기업과 동포들의 고민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일본 간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맞은 이번 사태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인 경제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봉제, 신발, 전자의 OEM(주문자생산방식)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기업인들은 이번 일본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속앓이를 하며 향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일본 기업에 납품하는 전기 및 자동차 관련 분야, 에너지, 유통 분야 등 일본과 협작사에 한인 기업들도 거래선의 태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혹시 불똥이 떨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부분의 한인동포들은 아베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명단 제외가 한일간 감정적 경제 전쟁으로 확산되어, 쉽게 매듭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동포사회에 미칠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동포사회부>

2019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에서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농식품 수입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수입유통제도 관련 자문서비스 및 수입식품등록 관련 업무소요비용 지원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업체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수입(예정)업체
2. 신청기간 : 2019.11.30 까지 상시 접수
3. 신청방법 : aT 자카르타지사 접수(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4. 지원기준 :

지원사업	자문	포장 페키지	바이어특화		
			컨설팅	등록비	검사비
지원비율	전액지원		농식품 90% 지원(수산식품 80%)		

- * 자문지원 : 업체별 연간 최대 20건
- * 포장페키지 : 업체별 연간 최대 2억 루피아
- * 바이어특화 : 업체별 연간 최대 2억 루피아

5.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현지 자문	법률자문	· 현지법인 설립 관련
	통관·검역	· 현지 통관 규정, 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 현지 검역 관련 규정, 절차 및 구비서류
	기타	· 서류준비(위생허가증 등) 및 작성 검토 · 식약청(BPOM) 등록 절차 등록진행 절차, 성분 사전확인, 구비서류 등
포장 페키지	디자인비용	· 한국/인도네시아 업체 연계 포장페키지 디자인비용
바이어 특화	컨설팅	· MUI 할랄 진행 절차, 할랄 재료 목록, 설비 조건 등
	식약청 수입식품 등록제도	· 수입식품등록(생신)비 실비 지원 *등록대행비 미지원
	검사비	· 수입식품등록 관련 제품 영양성분 분석 및 검사

* 현지자문은 여전 상 장기간의 연구분석이나 심층 법률자문 불가

* 바이어특화사업 지원조건은 2019.11.30. 까지 완료된 식약청 수입식품등록 건에 한함

* 식약청 수입식품등록제도 : ML(Makanan Luar, 수입식품), TI(Obat Tradisional Import, 전통의약품), SI(Suplemen Import, 건강보조식품)

6. 문의 및 접수처 : jakarta@at.or.kr

8월 8일, 아세안 창립 기념일

8월 8일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ASEAN)의 창립기념일이다.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에 태국 방콕에서 창립을 선언하였다.

아세안 창립 현장 서명은 인도네시아는 아담말릭(Adam Malik) 외무부장관, 말레이시아는 둔 압둘 라자(Tun Abdul Razak) 외무부장관, 필리핀은 나르시스코 라모스(Narsisco Ramos) 외무부장관, 싱가포르는 에스 라자랏남(S. Rajaratnam) 외무부장관, 태국은 타낫코만(Thanat Koman) 외무부장관에 의해 서명되었다.

아세안은 경제 성장, 사회 진보, 문화 발전을 증진시키고, 지역에서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증진하며, 회원국간의 평화적 차이점을 논의할 기회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아세안 회원국은 5개국였지만 1984년 7월 7일 브루나이, 1995년 7월 28일 베트남, 1997년 7월 23일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4월 30일 캄보디아가 아세안에 가입해 아세안의 회원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아세안은 지구상의 총 면적의 3%에 해당하는 446만 km²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인구는 6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8.8%에 해당한다. 아세안 해역의 면적은 육지 면적의 3배다. 아세안은 단일 주체로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브라질, 영국, 또는 이탈리아에 이어 9번째로 큰 경제공동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아세안 창립 10여년이 지난 1976.2월에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사무국을 설치(1976.2월)하는 등 느리게 발전해 오다가, 90년대 이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창설(1994.7월), 아세안+3 체제 출범(1997.12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월) 출범(2005.12월) 등 확대되었다.

아세안 국가 간의 비자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9개국의 시민들에게 30일간 무비자로 방문 허락을 주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국민은 무비자로 브루나이와 미



얀마 방문은 14일 가능하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캄보디아는 브루나이, 미얀마에게 비자 요구하고 있다.

* 아세안 개관

명칭 : 동남아시아국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출범 및 전진

60년대 중반 베트남전 본격화, 중국의 문화대혁명,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주의 확산 등 지역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67.8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이 아세안 창설. 브루나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1984.1월) 후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고, 지역주의가 고조되면서 베트남(1995.7월), 라오스·미얀마(1997.7월), 캄보디아(1999.4월)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현재의 10개국 연합 체제 완성

* 확대 및 제도화

2008년 아세안헌장이 발효되고, 운영 방식이 확정되는 등 제도화 완성. 의장국은 알파벳 순서로 순환하며, 금년도 의장국은 싱가포르(2019년 태국)

아세안 10개 국가가 10개 대화상대국과 1대 1로 매칭되어, 3년간 대화조정국 역할 수임(브루나이가 2018년 중반부터 3년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수임 중)

※ 10개 대화상대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

도, 미국, 러시아, EU, 캐나다

[아세안 확대회의체]

1. 아세안+3

아시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동남아(ASEAN)-동북아(한중일)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7년 출범하였으며, 동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된 협력 체로 평가. ※ 매년 아세안(금년 의장국 : 태국)과 3국(한·중·일) 3국 의장국 : 중국) 의장국 간 협의를 통해 주요 의제 및 협력 사업에 대해 의견 조율

2. 동아시아정상회의(EAS)

2005년 출범 아래 역내 전략·정치·경제 이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상 주도 전략 포럼(Leaders-led premier forum)으로 설립. 7개 협력 분야(환경/에너지, 교육, 금융, 재난관리, 보건, 해양협력, 아세안 연계성)에서의 기능 협력도 이루어지는 이원적 성격으로 발전

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태 지역의 정치·안보 문제에 대한 역내국가간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 ARF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분쟁의 사전방지 등 예방외교의 틀 형성에 기여. ※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중인 역내 안보 협력체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한국 외교의 지평을 다변화하면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과 상생번영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한국 외교의 지평을 다변화하면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과 상생번영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정치

조코위 2기 정부에 바란다(1)

인도네시아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

인도네시아 노동 인력 부처에서 인도네시아 교육 기관을 이수/졸업한 외국인에 한하여 특별 취업 법령을 적용해 주길 바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인도네시아 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학생비자의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술 연구 고등 교육부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는 약 7,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인도네시아 대학에 다니고 있다.

이는 기술 연구 고등 교육부가 목표로 삼은 외국인 유학생 수치인 10만명에는 훨씬 못 미친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4년동안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수학한 인도네시아 전문가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국과 연계해서 일해야 하지만 취업비자 제한 규정 때문에 되돌아가고 있다. 이는 결국 인도네시아 대학에 유학생이 줄고 있는 큰 이유다.

10만 유학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당국은 다시한번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수학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비자 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인도네시아 이민법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비자 취득 혹은 취업비자 취득을 하여야만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생비자는 소멸되고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취업비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I (Permenaker)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업무의 전공자이면서,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혹은 5년 이상의 해당 업무에 경험을 있는 경우에만 인도네시아에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이기에 해당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5년 이상 자국에서 근무 경험을 쌓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조건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4년을 수학한 외국인 대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대학에 다니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

자카르타 시민단체, 대통령 장관 주지사 고발장 접수

호흡기환자 9,990만명 가운데 58.3%가 대기오염 질병
매년 51조 2,000억 루피아 지불...
자카르타 매월 20만명 호흡기 감염



<7월28일 AQI 자카르타 대기오염 지수 197로 나와 있다>

지난 7월 28일 06시04분 자카르타 대기오염지수가 197로 최고치를 기록하자 심각한 자카르타 대기오염에 참다못한 자카르타 시민과 단체들이 조코위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과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조유의 사태를 맞았다.

원고인단 수도방어조직팀(Tim Advokasi Gerakan Ibu Kota)은 지난 8월 1일 자카르타 대기오염과 관련해 중부 자카르타 법원에 조코위 대통령을 비롯한 산림환경부장관, 내무부장관, 보건부장관, 자카르타 주지사를 피고 인으로 고발했다. 또한 수도방어조직팀은 서부자와주와 반쁜주에 있는 산업시설로 자카르타가 오염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서부자와 주지사와 반쁜 주지사도 고발했다.

지난 6월 원고인단을 모집한 자카르타 법률지원협회(LBH

Jakarta)는 환경운동가와 시민 등 31명이 구성한 수도방어조직팀을 조직했다. 변호사 Nelson Simanjutak은 자카르타 주민들이 지원해 주기를 부탁했다고 Kompas 신문은 8월 1일자로 보도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지부는 "인도네시아의 대기오염 관련 규정은 20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대기 오염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카르타의 미세먼지(PM2.5) 수준이 34.5 $\mu\text{g}/\text{m}^3$ 에 이를 수 있다. 이는 특히 어린아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은 10 $\mu\text{g}/\text{m}^3$ 다.

* 자카르타 대기 건강 해롭다

8월 1일자 봄빠스지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카르타는 건강에

해로운 대기오염 연무에 쓰여있다고 전했다. 대기질 오염조사 AirVisual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기질 오염지수가 평균으로 159.75 수치다. 6월 12일에는 자카르타 대기질 지수가 163, 25일에는 175 수치, 7월 28일 06시04분에는 19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도시 가운데 최악의 대기질 오염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AQI의 값 범위는 0에서 500 사이이다. 이 값이 클수록 지역의 대기 오염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0 ~ 5는 좋은 공기를 의미하고 51-100은 보통 의미하고 101-150은 민감한 사람에게 건강하지 못하며

151-200은 건강에 해롭다.

201-203은 매우 건강하지 못하며



<2019년 8월 2일 09시 56분 자카르타 시내가 절은 매연에 잠겨 있다.>

301 ~ 500 이상은 최고 위험상태이다.

자카르타는 AQI에서 195 수치는 건강에 해로운 공기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염공기애 민감한 상황에는 골프나 야외 활동을 줄이도록 권장한다. 모두가 오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때 실내환기는 권장하지 않고, 공기가 좋지 않으면 공기 청정기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남회발유 방어협회(KPBB-Komite Penghapusan Bensin

Bertimbang)에 따르면 오염물질 47%는 차량에서, 22%는 산업에서, 나머지 31%는 레스토랑, 쓰레기 연기 등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또한 자카르타 환경국도 대기 오염은 75%는 육상교통 차량에서, 9%는 산업에서, 나머지 16%는 쓰레기 연소와 레스토랑, 가정 요리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납휘발유 방어협회(KPBB)는 2016년 호흡기 질병환자 9,990만 명 가운데 58.3%가 대기오염과 관련 질병으로 51조 2,000억 (51,2 triliun rupiah) 루피아를 지불했다고 전했다. 세계보

건기구에 따르면 지구촌 1/8 인구가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했다. 2018년 건강조사 결과 천식에 걸린 환자 51.2%가 대기오염으로 발생되었고 자카르타에서 매월 20만 명 주민이 호흡기 감염(ISPA)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KPBB는 자동차없는 날에도 더러운 공기 때문에 거리에서 운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자카르타 주정부는 환경 보호 및 관리법 제112조의 지역 사회에 조기 경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사회부>

* 에어비주얼(AirVisual)



최근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AirVisual)은 전 세계에서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나라와 도시를 조사하고 있다. AirVisual은 40여 개 국가와 6,000여 개 도시의 환경 오염 물질의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

이트로 지역별 공기오염도를 수치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AQI는 한 지역의 대기 질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AQI는 미세먼지 PM 2.5, 부유먼지 PM 10, 일산화탄소, 황산, 이산화질소 및 지면 오존과 같은 여섯 가지 주요 오염 물질 유형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PM(Particulate Matter) 2.5는 직경 400분의 1mm이하의 먼지입자로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가 가장 작고 위험한 물질 중 하나다. PM 1은 초미세 먼지를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맛이 보입니다**

간장한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TOBAK
KOREAN RESTAURANT

도박

지도

• 새로운 메뉴
• 콩나물삼겹살
• 녹차고등어김치조림

Jl. Woltermonginsidi No.30 Jakarta Selatan
예약전화
Tel : 725-1135,7278-0055,7280-0753
Fax: 720-3642 HP.0858-1412-5338

PT. FREIGHT CARGO LOGISTICS

해상운송
- Neut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edung Perkantoran Pulomas Satu, GD.3 LT.3 R.10
JL. Jend. A. Yani No.2, Jakarta Timur
TEL. 021-475 4547,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이하늘/GMIS 9학년

시대가 바뀌며, 세상은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 좋은 변화들이 있는 만큼, 사회에 해가 되는 변화가 따르며 장단점들이 생기고 있다. 그 중 눈여겨 봄야 할 것은 바로 스마트폰 (smartphone)이다.

스마트폰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실, 우리는 더는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기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정보 공유, 간편한 대화 시스템, SNS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기능도 발전하고 있으며 빙수기능과 같은 유용한 기능들이 부여되고 있다.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이 스마트폰을 따가운 시선들로 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 중독 (smartphone addiction)”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의존, 내성, 금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한다.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사고에 휘말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험에 빠트리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실제로 샌디에이고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다 절벽에서 추락해 숨졌다. 교통안전 공단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중에 2명 이상은 그러다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실제로 있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437 건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12년



에는 848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통 길을 걸을 때 사람의 눈은 120도에서 150도 정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는 시야각이 10도에서 20도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그 뜻은,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장애물이나 위험요소가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사고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써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해가 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며 사용 시간을 정해두며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

스마트폰을 얼마큼 유용하고 실속있게 사용하느냐, 자신에게 해가 되게 사용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카르타의 까끼리마

신지환/지스 1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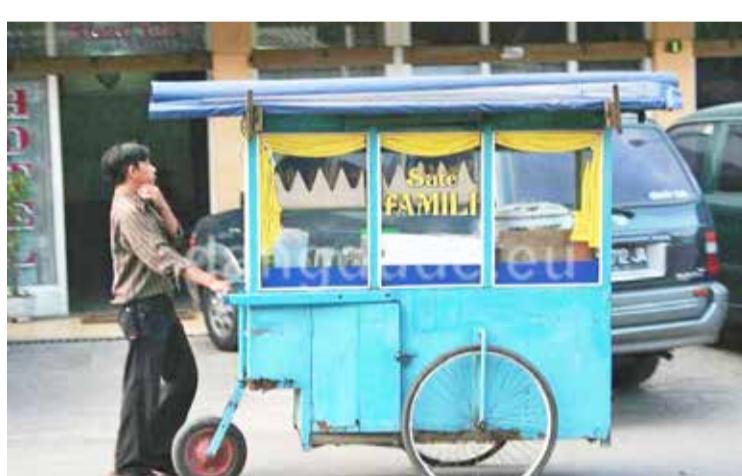
우리가 살고있는 인도네시아는 제3세계에 속한 나라이긴 하지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나라이다. 선진국처럼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옛날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사람들은 항상 친절하고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많은 것 중에서도 한가지는 인도네시아의 음식을 들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음식의 향과 맛은 다른 나라에서 찾을수 없는 특이함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제국주의 침략의 원인이었다고도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향신료의 나라였으며 여러 섬들과 바다 그리고 375개의 도시에서 나오는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각각 다른 요리 방식과 풍습으로 맛있고 특이한 요리가 많은 나라이다.

이미 나시고렝은 세계적인 요리가 되었으며 요즘 인도네시아의 인스턴트 라면인 mi goreng은 당당히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에서도 대형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음식들이 인도네시아 서민들에게 다가가 소비되고 있는것이 바로 길거리 음식이다. 자카르타에서도 거리에 여러가지 음식을 파는 모습을 많이 볼수있다. 우리의 리어카와 비슷한 바퀴가 달린 상점을 인도네



시아에서는 “Kaki Lima”라고 불리며 싸고 맛있게 여러가지 인도네시아 음식들을 제공 한다. 하지만 한국사람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은 이 음식을 쉽게 사게되지 않는다.

인터넷의 블로거나 리뷰의 글을 통해보면 역시 부정적이며 인도네시아 시민들 외에는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미 나시고렝은 세계적인 요리가 되었으며 요즘 인도네시아의 인스턴트 라면인 mi goreng은 당당히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에서도 대형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음식들이 인도네시아 서민들에게 다가가 소비되고 있는것이 바로 길거리 음식이다. 자카르타에서도 거리에 여러가지 음식을 파는 모습을 많이 볼수있다. 우리의 리어카와 비슷한 바퀴가 달린 상점을 인도네

정겨운 kaki lima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음식은 문화를 대표하고 나라간에 교류를 원활히하게 할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풍부한 향신료와 각종 재료들을 이용한 지역 음식을 잘 개발하고 특히 즉석에서 만드는 뒤 김요리가 많은 인도네시아 음식의 경우 까끼리마처럼 이동이 가능한 상점은 더욱 좋은 방법인 듯 하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도 맛 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뿐더러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좋은관광상품이 될수도 있을것이다.

문제는 좀 더 깨끗하게 시설을 정비하고 음식을 관리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책적인 뒷받침도 정부에서 제공한다면 싸고 맛있는 음식을 대중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함께 즐길수 있는 좋은 상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거리에서 이

염료는 색소의 일종이며, 기름, 알코올에 녹아, 안료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염료의 가장 큰 용도 중 하나는 옷의 염색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른 용도 중에는 잉크, 가구, 식품, 화장품의 염색 등이 있다.

이렇듯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염료와 접촉한다. 하지만 모든 염료가 인체에 무해할까?

2010년, 워싱턴 DC의 ‘공의 과학 센터’(CSP)는 FDA 허가를 받은 인공 식품 염료들이 발암성이 있을 확률이 높고, 정신적 그리고 행동적 문제들을 일으킬 거고, 일부는 제대로 겸증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옷, 가죽 제품과 일부 식품을 염색하는데 사용되는 아조 염료 중 일부는 발암 물질 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생성한다는 것이 겸증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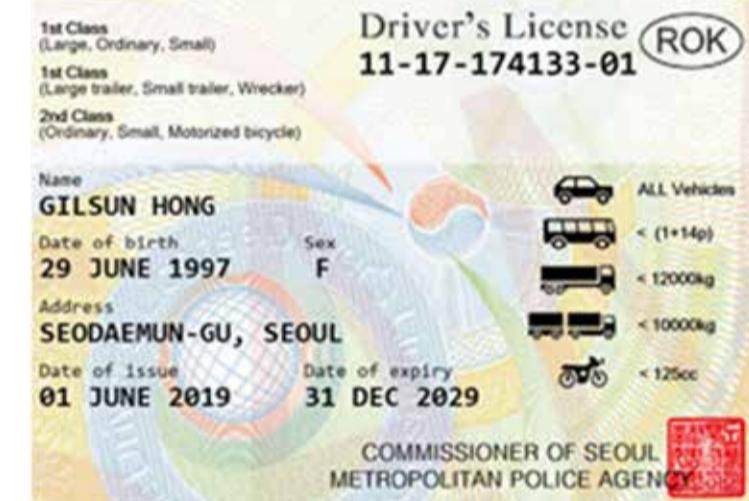


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는 벌써 문제의 염료들을 금지했지만, 이미 팔린 의류 물품들은 어찌면 아직 회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19세기 초반의 부자들은 방사성 물질 라듐을 일부러 구매해 먹고 마셨다. 라듐이 불리로는 부작용들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 삶 곁에도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우리는 그것들을 일부러 구매해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이런 물질의 유해성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더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9월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글. 이영재/SIS BV 11학년



2020년부터 발급되는 모든 대한민국의 여권의 디자인이 변경된다는 뉴스에 이어 올해 9월부터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표적인 신분증인 운전면허증도 바뀐다고 한다. 이제 국내 운전면허증이 있는 국민은 외국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은 한글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관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번역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이라는 유효기간과 8500원의 수수료, 인근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등 제한된 장소들에서만 발급 가능하는 등 외국에서 운전을 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기존 한글 운전면허증 뒷면의 기재사항 변경판을 없애고 영문으로 된 개인정보와 EU의 운전면허증처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기재하기로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기재사항은 1999년 기재사항 변경의무 규정 폐지 이후 그 의미가 없어져서 그것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발급 즉시 캐나다, 영국, 터키, 뉴질랜드 등 30여 개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현재 정부는 미국,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등 37개의 국가들과 추가 협상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국가들 중 인도네시아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래도 교민들이 많이 가는 호주, 싱가포르가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필리핀과 동티모르 등이 추가 될 수도 있어 교민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 같다.

이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에 따라 2,500~10,000 원을 추가하면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출처=조선일보, 도로교통공단)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어느 나라에서 통할까		자료=도로교통공단
즉시 통용되는 국가(30개국)	통용 예상되는 국가(37개국)	
아시아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몰디브, 브루나이, 비누이투, 파푸아뉴기니	카자흐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피지, 동티모르, 마이크로네시아, 부탄, 투발루, 솔로몬제도, 쿠알란드, 타지키스탄, 카리바시, 투르크메니스탄	
아메리카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라.페루,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수리남, 비네이도스, 도미니카공화국, 세인트루시아, 북미리아나제도연방, 트리니다드토부고	미국(플로리다 등 4개 주), 브라질, 풀리비아, 엘살비도르, 에콰도르, 바하마, 과테말라, 아이티, 앤티가비우다, 가이아나	
유럽 영국, 아일랜드, 터키, 페인드, 덴마크, 키프로스	독일, 핀란드, 헝가리, 스위스, 이탈리아, 러시아, 리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조지아	
아프리카 카메룬, 르완다, 라이비리아, 부룬디	나미비아, 레소토, 리비아	
중동 오만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동포청소년 701명 역사현장 탐방

재외동포재단 중·고생 모국연수
17일부터 전국 11개 도시서 개최

‘2019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가 59개국(한국 포함) 1,076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 701명과 국내 참가자 375명이 참가하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여수, 영천, 고양, 파주, 군산, 전주, 진안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특히, 그 동안 참가자가 적었던 재일동포 중·고생 67명이 참가한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다음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차세대

한우성 이사장은 “모국연수는 동포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매우 중요 한 프로그램으로,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한민족 차세대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재



K POP 앨범 구입은 한인포스트 SHOP에서

- * 가수 대형 포스터 택일
- * 최저가 25만~35만/개당

연락처 : 021-45869198 카톡아이디 haninpost

‘2019 토라자 국제 페스티벌’ 보셨나요?

문화원, 한국 우수 예술공연 지원



올해 제7회째를 맞이한 토라자 국제 페스티벌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 브라질 등 총 5개국이 참가해 문화·예술공연, 패션쇼, 푸드 페스티벌, 전통공예박람회, 학창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세계적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행사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원장 천영평)은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북부 토라자시가 7월 19일(금) ~ 21일(일) 3일간 주최한 ‘2019 토라자 국제 페스티벌’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3호 ‘전주기집놀이’ 공연을 지원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의 2019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접주기집놀이(단장

백정신) 공연은 공연단장을 비롯한 12명의 공연자로 구성된 ‘전주기집놀이보전회’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수준 높은 한국전통우수공연을 19일과 21일 양일간 2차례의 공연을 선보였다.

약 2천여명의 관객들은 팽과리, 징, 장구, 북이 전하는 풍물

놀이의 신명나는 리듬과 장단에 맞춰 휘날리는 화려한 깃발들이 어우러진 공연에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축제에 참가한 한 지역주민은 “무대구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한국전통무대가 친근하게 느껴졌다”며 행사소감을 전했다.

천 문화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재국 내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 한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재국내 지역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양방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봉침을 전했다.



GLOBAL LOGISTICS PROVIDER

We provide the optimum solution and customized service with smart logistics system.



KGL
Global Logistics Provider

PT. KGL Indonesia

The Prime Office Suite TWR LT7 Suite 7A
Jl. Yos Sudarso Kav. 30, Sunter
Jakarta utara, Indonesia 14350

Tel. +62-21-2265-4188

Email : korean@kglijkt.com

<http://www.kglnetwork.com>

“한국문화원 개원 8년 됐어요!”

체육대회 성료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이 올해로 8주년을 맞았다. 한국문화원은 지난 7월 21일(일) 9시 스나얀 트레이드 센터(STC) 농구경기장에서 개원 8주년을 기념하여 주재국민과 한국동포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Run Together Korea-Indonesia!’를 주제로 한 이번 체육대회에는 온라인을 통해 참가 신청한 500여 명 중 200명을 선착순 선발해 청·녹·적·황 4개 팀으로 나누어 현지인들에게는 다소 이색적이었던 경기들을 펼쳤다. 이날 코리아넷 기자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기자들을 비롯해, 한류 팬워블로거들이 참석하여 함께 뛰면서 취재하는 열정을 보여줬으며, 한국문화원에서 선발한 제1기 K-Kru 중 20명을 선발하여 이 날 첫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천영평 문화원장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문화원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며 “오늘 이 합성이 한국문화원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하자 참가자들의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다.

이번 행사는 2018 아시안개임 태권도 품새 종목 최초 금메달리스트인 데피아 로스마니아 선수(사진)와 국기원의 신승



종 사범이 특별 게스트로 참가하여, “태권도가 인연의 끈이 되어 한국에 대한 애착이 깊다.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축사를 전했다.

데피아 선수와 ‘N-Lions’ 태권도 퍼포먼스팀을 선두로 몸풀기 운동을 시작으로 1부 경기의 서막을 울렸다. 1부에서는 치열한 접전 속에 빅 배드민턴 복식전, 미니볼링, 단체줄넘기 종목으로 치열한 토너먼트전을 펼치는 내내 참가자들 각 팀 선수들을 응원하는 합성이 경기장 전체를 가득 메웠다.

이어 2부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도네시아 태권도 N-Lions 팀이 허공 송관격파 등 화려한 태권도 기술을 선보이고 이어 방탄소년단 음악에 맞춰 태권도 동작을 접목한 흥겨운 퍼포먼스로 공연을 펼치자

참가자 전원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동작을 따라 하는 등 열광의 도가니였다.

한국문화원은 지난 2011년 7월 18일 개원했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는 리아(27)씨는 “문화원의 오랜 회원으로써 다 함께 땀 흘리며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문화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원의 열혈 팬이 되어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민간대사가 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천 문화원장은 폐회식에서 “한국문화원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하면서 ”사고없이 오늘 이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동포사회부>

인도 덴탈 센터 전문치과병원

INDO DENTAL CENTER



치과의사 정혜정

- 숙명여자대학교 졸업
- 뜨리삭띠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쉐도잉
- 뉴욕대학교 치과대학 신경치료 연수

DRG. Jung Hye Jung(Helen Jung)

예약전화 : 021-2751-3777

INDO DENTAL CENTER

info@indodentalcenter.com

Jalan Wolter Monginsidi No. 97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구 한강 레스토랑 옆, 하나은행 건너편)

장박사의 청소년 진로진학칼럼 22

직업탐구
‘항공기 객실 승무원’

장창국
교육학 박사, JKJS 진로교사,
커리어넷 진로상담위원,
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자료
개발팀 재외국민전형 담당
한인포스트 교육칼럼리스트

지난 7월 19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전문직업인 초청 ‘진로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직원들의 봉사활동으로 진행되는 ‘아시아나 색동나래교실’을 유지하여 항공기 기장과 항공기 객실 승무원을 학생들이 직접 만나서 직업인의 삶과 애환에 대해 이해하는 끝깊은 자리였다.

평소 진로진학상담을 통해 항공기 기장이나 객실승무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힌 학생들이 있어 이번 칼럼에서는 객실승무원에 대해 먼저 글을 쓰고, 다음 기회에 항공기 기장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1.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란?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여객기에서 탑승객을 안내하고 기내식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며,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도와주는 직업인이다. 캐빈 크루(Cabin Crew)라고도 한다. 성별에 따라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 남자 승무원을 스튜어드라고도 부르지만, 영미권에서는 성차별적인 용어라고 하여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한다.

2. 항공기 객실 승무원에게 필요한 직업 적성 및 흥미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늘 새로운 사람들을 대하면서 도움을 주는 일이 적성에 맞아야 하며, 부드러운 언행과 밝은 미소로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처능력도 필요하다. 또한, 어떤 환경에

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승객을 대할 수 있는 사람, 여러 나라를 여행해야 하고, 시차 적응 등 불규칙한 생활리듬에 대한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외국인 승객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 실력, 다른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며 일할 수 있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가 적합한 직업이다.

3.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될 수 있는 조건

항공사마다 신체조건 등 약간의 조건들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키는 162cm이상이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이보다 키가 작아도 서있는 상태로 손을 위로 뻗어서 208cm이상을 달을 수 있으면 된다. 나이 제한은 폐지되어서 20대 후반에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고, 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는 나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

또한, 2년제 대학(전문대) 이상의 학력과 일정한 영어실력(토익 550점 이상 등)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항공운항관련 학과를 졸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게 되면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항공운항관련 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대학에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및 훈련, 선배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4. 선발 절차 및 내용

항공사마다 선발절차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일반적으로 서류평가와 면접으로 선발을 한다. 서류평가는 토익 성적표, 대학 성적표, 자격증 등이다.

서류평가는 통과한 일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면접, 영어 면접, 역할 시연(롤플레이) 면접 등을 진행한다. 서류평가는 면접이 일반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한다. 면접은 1차가 실무자 면접이고, 2차가 임원 면접으로 진행된다.

5. 남자 항공기 객실 승무원 선발

항공기 객실 승무원하면 여성 생각한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남자 승무원들도 있다. 남자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기 객실 승무원 선발공고를 낼 때, 따로 남자 승무원 선발에 대해 공고를 해서 선발하고,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는 따로 공고를 내지 않고 일반적으로 승무원 채용 공고에 남녀 모두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선발과정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하게 된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대한항공 소속 직원을 항공기 객실 승무원으로 전환하는 ‘사내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필자와 막연한 사이인 대한항공의 한 남자 직원도 일반 사원으로 대한항공에 입사하였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내전환으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을 했다. 지금은 가끔 승무원으로서 출장을 다녀오지만, 대부분은 대한항공의 일반사원으로 객실승무원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6. 항공기 객실 승무원(항공운항)관련 학과

지역	학위	대학명	학과명	지역	학위	대학명	학과명
경기	2년제	동서울대	항공서비스전공	경북	경산1대	항공서비스과	
		동원대	항공서비스과		서라벌대	항공서비스과	
		수원과학대	항공관광과		대경대	항공운항과	
		장안대	항공운항과		영남외대	관광항공서비스과	
		연성대	항공서비스과	4년제	동양대	항공비서학부	
		한국관광대	항공서비스과		대구	2년제	계명문화대
인천	2년제	경인여대	항공관광과		2년제	호텔항공광학부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전북	광주	4년제	광주여대
충북	2년제	주성대	관광항공서비스과		2년제	스튜어디스학과	
		충청대	항공여행전공		2년제	전주기전대	항공운항과
		강동대	항공관광과		2년제	고구려대	항공운항과
	4년제	극동대	항공서비스학과		4년제	동신대	스튜어디스학과
충남	2년제	공주영상대	스튜어디스과	부산	경남정보대	항공관광과	
		백석문화대	항공서비스 전공		동주대	항공운항과	
	4년제	중부대	항공서비스학과		동의과학대	항공운항과	
		한서대	항공관광학과		부산경상대	항공비서과	
대전	2년제	영진전문대	호텔/항공전공		2년제	부산여대	항공운항과
		우송정보대	스튜어디스과		4년제	영산대	항공여행학과
	4년제	혜천대	항공서비스전공		4년제	제주국제대	항공서비스학과

7. 항공운항관련 학과에 지원하려는 학생에게 주는 조언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항공관련 학과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교는 많지만, 일반적으로 인하공전과 한서대에 지원한다. 한국의 일반 학생들의 경우라면 매년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지만,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지원자가 많지는 않아 한국 학생들에 비해 훨씬 입학하기 수월하다.

항공기 객실 승무원관련 학과에 지원하기 전에 있는 상태로 손을 뻗어 208cm이상을 달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등 신체 조건이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만 한다. 또한, 항공운항과의 특성상 내신 성적보다는 면접성적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면접 준비를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내신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면접 성적이 나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반면에, 내신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미래의 항공기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이미지(표정, 자세, 미소, 말투, 시선처리, 제스처, 인상, 자신감)를 잘 표현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말고, 성실한 생활태도를 기본으로 하여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면 그 꿈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어면접의 경우 아직 고등학생이기에 영어로 간단한 자기소개 정도만 이루어진다고 하니 영어를 못해 걱정을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마다 면접 진행 절차나 내용이 다양하고, 합격자 사례에서도 내신 성적의 차이가 많으니 반드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해당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내신 성적이 낮아서 고민하며 그 꿈을 미리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열심히 준비하는 자세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자와 결혼 문화>

자와족 빙잇 (pingit) 풍습

빙잇 풍습은 자와족의 문화로 결혼 전에 신부가 외출을 금지하는 풍습이다. 그것은 결혼할 신부가 신혼 전에 신랑과 애정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 치장하거나 신혼 준비를 위해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기도 하다. 빙잇 풍습은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했지만 전통은 그대로 남아 있다. 지금도 빙잇 기간은 부모의 승인으로 신부가 결정할 수 있는데 1주일 또는 3일정도이다.



주고 받았다.

았고, 이들은 빙잇 풍습을 잘 지켜왔다.

* 자와족 3가지 결혼조건 '비빗, 보봇, 베벳'

자와족 사람은 결혼 상대자에 대해 비빗, 보봇, 베벳이라는 3 가지 결혼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비빗 (bibit)이란 결혼 상대자가 가족생활이 지켜야 한다, 보봇 (botbot)이란 결혼 상대자가 직업 등 소득이 있어야 한다, 베벳 (bette)이란 결혼 상대자가 성격이 좋아야 한다.

자와족은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어 결혼식은 이슬람과 전통 문화로 거행된다. 결혼식은 먼저 이슬람식으로 거행되고 이어서 전통 문화식으로 어여간다. 보통 결혼선물은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반지, 돈, 예배를 하기 위한 특별한 옷을 준다.

결혼식에는 숭금이라는 풍습이 있다. 숭금은 신랑과 신부가 차례로 각 부모에게 절한다. 신랑과 신부는 의자에 앉아 있는 부모님의 무릎 앞에 절하면, 부모는 축복 기도를 해 준다.

<기사. 사회부>

CGV

4DX GOLD CLASS STARIUM SWEETBOX Velvet SCREEN X

★★ NOW SHOWING ★★

Get into the action.

THE JOURNEY OF BTS CONTINUES IN CINEMAS LIMITED SCREENINGS BEGINNING AUGUST 7

DORA AND THE LOST CITY OF GOLD

★★ COMING SOON ★★

한국영화 페스티벌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즐기세요!

www.cgv.id

‘2019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인니 지역예선전 열기 ‘후끈’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은 공공외교사업 실천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KBS가 공동주최하는 지구촌 최대 K-Pop 축제 ‘2019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인도네시아 지역예선전을 7월 28일 센트럴파크 쇼핑몰 야외홀에서 개최했다.

올해 9회째를 맞은 K-Pop 월드 페스티벌의 온라인 예선전에는 자카르타를 포함해 발리과판, 말랑, 마카사르, 파푸아 등 총 25개 도시에서 314팀이 참가한 청하고, 심사를 통해 댄스부문 13팀과 보컬부문 9팀으로 총 22

개팀(12개 도시)이 선발되어 일요일 자카르타의 밤을 열기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KBS가 공동주최하는 지구촌 최대 K-Pop 축제 ‘2019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인도네시아 지역예선전을 7월 28일 센트럴파크 쇼핑몰 야외홀에서 개최했다.

심사위원으로는 문화원장과 케이팝스타 시즌2에서 ‘천재 기타 소년’으로 유명세를 탄 가수 맥케이(Mackey), 그리고 한국 문화원 2019 K-Pop Academy 댄스부문 강사로 초빙된 현직 방탄소년단 ‘IDOL’ 활동과 다수의 유명 아이돌의 안무를 맡고 있는 박경열 안무가가 참여해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

본 행사는 김창범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22개 예선 진출팀이 감미로운 목소리와 절도 있는 댄스퍼포먼스로 3시간여 진검승부를 펼치는 동안 관객들은 내내 열렬한 환호로 응원했다.

2019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인도네시아 지역예선전의 보컬부문 우승은 블래핑크의 ‘뚜두뚜두’를 열창한 보고르 출신의 쉘비 아딧야(Shelby Aditya), 댄스부문은 세븐틴의 ‘숨이 차’를 커버한 자카르타 출신의 익스펙토(Expecto)팀이 각각 1등으로 영예를 안았다. 유난히 긴 장감이 감돌던 심사위원단의 심

나선 맥케이는 특별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는데, 모든 관객들이 때창으로 화답하면서 축제의 열기 를 더해갔다. 맥케이는 이번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에 출전한 팀들의 실력을 묻는 MC의 질문에 “실제 아이돌들의 공연을 보는 듯 했다”고 감탄을 전하면서 “22개 팀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무대를 보여주어 우승자 선정에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천영평 문화원장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진 K-Pop의 열기와 해마다 높아지는 참가팀의 실력을 통해 K-Pop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K-Pop 축제 참가 모두가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라면서,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최종 본선에 꼭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인도네시아를 빛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지역예선전 우승자는 KBS 심사를 통해 10월 창원 KBS홀에서 열리는 최종 본선에 출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1) 심사위원 맥케이와 박경열 안무가

사진4) 댄스부문 우승을 수상한 ‘익스펙토(Expecto)’ 팀 모습

사진5) 보컬부문 우승을 수상한 쉘비 아딧야(Shelby Aditya)

사진8) 헬라 메드니스(Hella Madness) 팀의 액스디아이 커버댄스 모습

삼포르나 아카데미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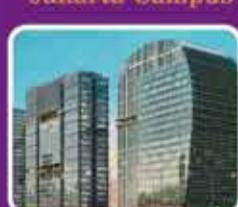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최고의 명문그룹 학교재단
유치원 초중고 시설 및 교육은 최고를 자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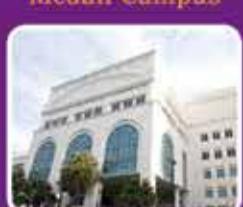
글로벌 경쟁력 지도자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교육 시스템
이미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에 한국학생들이 재학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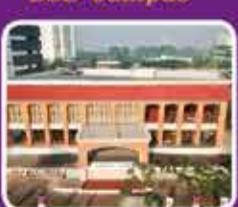
Jakarta Cam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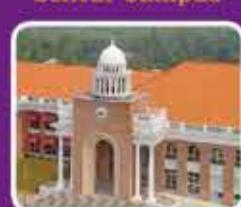
Medan Cam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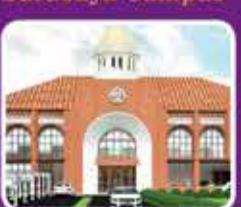
BSD Campus



Sentul Campus



Surabaya Campus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Cambridge International School



대학의 경우 영국 미국
교환학생제도 가능
삼포르나 그룹 취업 우선화 고려

〈입학문의〉 “상시입학가능” 한국인 상담환영



TEL : 021)5022- 2234

e-mail : info@sampoernaacademy.sch.id

인도네시아, Tax 시스템 및 정책 大 변화

- 인재육성 및 연구개발에 200~300% 세금 인센티브 적용
- 새로운 조세 관리 시스템 구축, 2023년 완료 목표

정부는 올해 과세소득 계산과 소득세 환급을 위해 2019년 정부 규정(PP) 45호를 발표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산업 발전을 증진시키는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특정 역량에 기초한 인재 육성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슈퍼공제세 또는 200%의 감면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은 네슬레의 인도네시아 카리와 공장 증설의 시공식에 참석하여, "인센티브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금공제(Tax

Holiday), 세금 완화(조세특별조치) 그리고 기계 수입 관세 면제 등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세제 개혁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Core Tax System'을 2023년까지 완료하고 2024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조세 관리 시스템의 구축에는 총 2조 400억 루피아가 투자된다.

국세청은 올 10월 'Core Tax System' 구축을 위한 조달 담당을 지정하여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0년 10월에 입찰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



히며,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과세 제도가 더 정교해질 것이며, 이는 국가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도입 이후에 개정될 세금 제도는 21가지이며, 세금 납부, 소득세 PPh 22, 23, 26은 통합되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등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GDP 대비 세금 비율을 1~1.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11.5%에서 2020년에는 12.2%로 인상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싱가포르 총 34억 달러 투자로 일본, 중국 제치며 가장 큰 손으로...



지난 7월29일(화) 투자조정위원회(BKPM)가 발표한 최신 투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동안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기록한 국가는 싱가포르이며, 총 5,348개의 프로젝트에 총 34억 달러를 투자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3,708개의 프로젝트에 24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은 1,518개의 프로젝트에 총 23억 달러를 투자했다.

한편 홍콩은 1,068개의 프로젝트에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4위를 차지했으며, 말레이시아는 1,432개의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5위를 차지했다.

2019년 상반기의 총 투자 규모는 총 395.6 조 루피아(미화 2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가 증가했으며, FDI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212.8조 루피아, 국내 투자는 16.4% 증가한 182.8조 루피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최고의 직장은 앙카사푸라

아시아 직장 순위에 인도네시아 기업 34개 포함

지난 7월말, HR Asia는 아시아 각국에서 "최고의 직장(Best Companies to Work for in Asia 2019)"을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순위는 공항관리공단 ANGKASA PURA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종합사 ASATRA가 뒤를 잇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4개 기업이 선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

보세창고 20년의 역사, RLC가 한발 더 나아갑니다

무역 통합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인도네시아 보세창고 20년 역사의 RLC가 그 동안 축적된 운용 및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역업무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보세창고 업무는 물론 해외 및 국내외 물류, 산업 원부자재 구매 및 판매대행, 통관 등 각종 무역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산업 원부자재
구매 대행



담당: 부장 최기락
MP: +(62) 816 182 0317
E-mail: krchoi@rlc.co.id

WE DELIVER
EVERYTHING, EVERYWHERE!

인니 물류의 대명사

짐모아가 함께 합니다!



EXPERT IN TRANSPORTATION



인도네시아 주간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신한은행인도네시아 제공



조코위 대통령, 퇴직금, 최저 임금 등 노동법 개혁 드라이브 걸다

Harjianto씨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의 공장중의 하나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운동화를 만드는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을 때 그는 충분한 사람들을 채용하지 못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퇴직금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최저 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 체계 내에서 Harjianto씨는 그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추가 인력 고용에 나설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의 PT Adis Dimension Footwear와 같은 공장들은 생산물량의 2/3 정도가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는데, 경직된 노동법으로 인해서 생산량에 최대 수량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경쟁국가 Vietnam과의 경쟁도 어렵게 만드는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공급 체인을 변경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가 동남아시아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에 공약했던 7%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오랜 기간 논쟁거리였으며, IMF에서도 자주 언급될 정도이며, 투자자들은 세계 은행이 집계하는 '사업하기 쉬운 국가 순위' 랭킹에서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인도네시아에게 낮은 평가를 내리는 이유기도 하다.

산업계는 또한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확실성을 원하고 있음. 현재 지역 정부와 각 도시 행정부 별로 최저 임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도 다른 기준들을 두고 있어서 노동시장의 파편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은 월 \$259 수준으로 베트남보다 50% 정도 많은 수준임.

Jusuf Kalla 부통령의 수석 자문관인 Sofjan Wanandi는 정부도 채용과 해고와 관련한 법을 더 유연하게 만들려고 하는 필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은 그의 여당 인원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수석 자문관인 Sofjan Wanandi는 "우리는 더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여당이 의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인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의 많은 정책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습니다. 예산을 포함해서 말이죠."라고 말하였다.

많은 노동 인력, 높은 빈곤 수준 및 수백만의 비정규 노동인력과 함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도 필수적인 일임. 실업률이 22년來 가장 낮은 수준인 5%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3900만명, 전체 노동 인구의 30%가 충분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음. 주당 1~34시간 수준의 부분 근로 형

국세청, 법적 확실성 강화를 위해 소득세 관련

[세무의 창]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

세무법인 다솔 임성균 회장

경제활동이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해외이주 국민이 2천200명으로 전년대비 2.7배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을 달리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적과 상관이 없다. 거주자는 본인의 전 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비거주자가 국내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기업인이 서울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려는데 거주자로 보아 세금을 줄일 수 없느냐는 상담이 최근 있었다. 거주자라면 1가구1주택이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붙고, 소유 10년 넘는 아파트라서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데 반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0%밖에 받지 못해 세금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 상속세에도 비거주자와 거주간 차이가 있다

상속공제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대30억 원)를 받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기초공제 2억 원 밖에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는 것이 상속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그러나 외국에 큰 재산이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사망할 경우 외국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

그 기업인은 한국에 상 2개와 펀드 2건을 보유해 국내에 재산과 생활기반이 있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인도네시아에 있고, 부동산 자산이 인도네시아에 더 많으며, 앞으로도 계속 현지에서 사업을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비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 사업가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 하여 거주자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재산·직업·가족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해외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증여세율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자는 5천만 원 증여공제를 받지 못한다.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자인 부모도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로 아예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재산을 증여해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 된다. 다만 국외재산을 증여한다면 국내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규정 개정

국세청장은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세금 계산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하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음. 국세청 대변인인 Hestu Yoga Saksama는 7월 3일 발표된 국세청령(Perdirjen) 제 2019-14호는 기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소득세의 징수와 관련한 국세청령 제2010-32호의 개정이라고 말하였음. 2010년 규정은 재무장관령 제 2009-208호의 파생 버전으로 제 2018-215호로 개정된 바 있다. 국세청 대변인인 Hestu Yoga Saksama는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재무장관령 제 2018-215호에 근거합니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한 옛 규정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은행 납세자와 기타에 관한 소득세를 규정합니다."라고 지난 일요일(21일) 발표하였다.

그는 재무장관령 제 2018-215호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가들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다룬다고 말하였음.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은행 납세자의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금융감독청에 의해서 제시된 재무제표에 기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해당 규정은 공기업이나 지역공사 등 다른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 계산 체계도 규정하고 있음.

사업자의 개별 납세자들의 소득세 규모는 그들의

사업 순소득의 0.75%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음.

만디리 은행 고객 계좌에 전산 애러 발생

국영 Mandiri은행의 많은 고객들은 지난 토요일(20일) 아침에 ATM 사용 시도에서 거래에 실패한 것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많은 이들은 그들이 계좌에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다.

만디리 은행의 법인 비서관인 Rohan Hafas는 해당 장애가 ATM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음. 그는 매일 자정에 은행은 일간 발생했던 거래들의 리포트를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만디리 은행의 법인 비서관은 "예를 들어, 당신이 100 루피아를 은행 계좌에 가지고 있고 그날 10 루피아를 인출한다면, 당신의 계좌 시스템은 당신이 90 루피아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라고 해당 거래 기록은 은행 백업 데이터로 남는다고 얘기하였다.

지난 토요일(20일)에도 이러한 작업이 일어났지만,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면서 만디리 은행 전체 고객의 10% 수준인 150만 고객의 계좌에서 계좌 정보가 바뀌었다고 말하였음. 만디리 은행의 법인 비서관은 "해결 방안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시스템에서 계좌 정보를 조정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현재 은행은 2,670명의 고객들의 계좌를 차단해 두었으며, 컴퓨터 시스템 오류 기간 동안에 원래 보유해야 할 잔고보다 더 많은 인출을 한 고객들의 계좌이기 때문에 막아두었다고 하였음.

Rohan은 지난 월요일(22일) 은행이 이러한 이슈를 발생시킨 계좌 소유주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음. 그는 만디리 은행이 과다 인출을 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음.

재무장관은 최근에 연구개발 및 직무 연수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한 것을 포함하여

투자를 이끌기 위한 재무적인 인센티브들을 준 것

이 투자를 이끌 것으로 보았음.

재무장관은 최근에 연구개발 및 직무 연수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한 것을 포함하여 투자를 이끌기 위한 재무적인 인센티브들을 준 것

이 투자를 이끌 것으로 보았음.

민간 투자 부문은 GDP에 기여도가 두 번째로 높은 부문으로 올해 1분기에는 전년대비 5.03% 성장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4% 성장에 비해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중앙은행은 7월 18일에 있었던 월간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하여 2017년 9월 이후 첫 인하를 시행하였음.

Perry Warjiyo 총재는 낮은 물가상승률과 국내 성장을 증진할 필요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힌트를 주었음. "앞으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한 필요로 우리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완화 정책이나 금리 인하 등을 바탕으로 말이죠"라고 그는 말하였음.

상반기 세수 증가 부진으로 정부 지출 축소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는 정부가 2019년 상반기 세수 성장이 부진하여 향후 몇 달간은 정부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입찰 방식을 늘릴 것이고 몇몇 프로젝트들은 실행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22일 kontan.co.id를 통하여 말하였다.

의회의 2019년 연방 재정 검토에서는 중앙 정부가 하반기에 정부 지출이 896.6조 루피아(641.9억 달러) 또는 연간 총 재정의 54.9%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하반기 지출 예측에서는 연간 전체 지출은 총 예산의 93.4%로 1,530조 루피아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지난해에, 중앙 정부 지출 비중은 예산의 100.1%였음.

소위원회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은 올해 2124조 루피아로 올해 연간 정부 재정에서 잡아두었던 224.32조 루피아에 비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지출 전망은 기초적인 거시경제 전망의 변화에 근간합니다. 연료 보조금의 현실화나 3kg LPG 통에 대한 보조금이나 비료 보조금, 에너지 정책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소위원회의 Iskandar Syaichu가 말하였다.

Sri Mulyani는 하반기에 지출을 낮추는 것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은, 상반기에 Asian Game과 관련한 지출이 커진 것과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에 따라 지출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만약 우리가 총 배정된 예산의 94~95% 정도를 지출한다면, 이것은 개선된 것일 겁니다."라고 장관은 말하였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세수 증가 측면에서 603.34조 루피아(432.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5%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2019년 연간 정부 예산에서 잡아둔 9.5% 증가에 못 미친다고 얘기하였음. 2018년 상반기에 증가율은 14.3%를 기록하였음.

인도네시아, UAE와 12개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 합의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경제적인 부문을 포함하여 12개 부문에서의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음. "논의된 핵심 내용은 첫째로 양국이 어떻게 경제 협력을 높일 수 있을지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라고 인도네시아 외교부 Retno Marsudi가 지난 수요일(7/24)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말하였다.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따라 양국은 12개 분야 가운데 9개 분야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국은 3개의 사업 대상 MoU에 합의하였으며, 그중에 하나는 원유 가스 회사 Pertamina와 ADNOC 사이의 상호간 전략적 이해 협정이었음. 2개의 다른 MoU는 Chandra Asri Petrochemical Erwin Ciputra의 대표이사와 석유 화학 투자회사 Mubadala Musabbeh Al Kaabi의 대표이사간 협력, Maspion Alim Markus의 대표와 DP World Sultan bin Sulayem의 대표 간 협력이었음. 이 모든 협약들이 조코위 대통령과 아부다비 왕자 Sheikh Mohamed bin Zayed Al Nahyan이 참석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다 합쳐 3개의 사업자간 MoU의 가치는 136조 루피아(97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라고 Marsudi는 말하였다.

인도네시아, 온라인 제품/서비스에 대한 부가 가치세 적용 초안 마련

인도네시아는 해외 기업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제품/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 초안을 마련하였음.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수입에서 큰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고위 국세청 관료가 토의에서 말하였다.

국세청 관료인 John hutagaol은 어떤 방법이 영역에 대한 법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쟁들이 지속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매출세의 성격인 부가가치세가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하였음. "이것은 낮은 위치에 있는 열매(쉬운 과세 방안)로 모든 나라의 규정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국세청에서 국제 부문을 담당하는 Hutagaol이 말하였다.

그러나 부가세를 부과하려면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을 따르면 전자상거래, 컨텐츠 제공자, 스타트업, 인터넷 기반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적용되며, 해당 디지털세를 적용해 본적이 있는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적용 방안을 찾고 있음. 그는 초안 이후 실제 신규 법으로 적용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절하였음. 인도네시아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많고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서비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음.

2016년에 인도네시아는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에 대해 세금 포탈 협의로 조사하였으며, 그들의 광고에 대한 부가세 미납 등을 지적하였지만 당국은 상호 합의로 종결 지었음.

(주)동주금속, 수라바야서 선박기술 및 조선소 경영지도

‘KOTRA 글로벌 CSR 지원사업’
기술·경영세미나 추진
600만원 상당의 자동용접 주행장치 기부

한국의 조선소 운영기술 및 생산성 향상 노하우를 전수하는 행사가 수라바야에서 열렸다.

KOTRA 수라바야무역관(관장 김현아)은 지난 7월 25일~26일 양일간 수라바야에서 ‘KOTRA 글로벌 CSR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동주금속(대표: 손동주, 소재지: 경남 양산시, 주요사업: 용접기자재 등 제조, 조선경영컨설팅)과 함께 ‘선박생산자동화 기술 및 조선소 경영지도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KOTRA 글로벌 CSR 지원사업’은 현대중공업 등 현장근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세미나 연사로 초청,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소 운영기술 및 생산성 향상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인도네시

아 조선소들의 역량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CSR을 주도하는 우리 기업에는 현지 인지도 향상 및 잠재 구매처 확보 계기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보다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유일의 조선특화 전문대학인 PPNS (Politeknik Perkapalan Negeri Surabaya, <http://ppns.ac.id>) 및 인도네시아 조선협회 IPERINDO (Ikatan Perusahaan Industri Kapal Dan Lepas Pantai Indonesia) 등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업 형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Improving Shipbuilding Productivity & Efficiency’라



는 타이틀로 진행된 1일차 세미나에는 국영조선소인 PT. PAL Indonesia (Persero), PT. Dok Dan Perkapalan Surabaya (Persero)를 비롯하여 동부 자바 주 소재 조선소 및 연관 업종 임직원 6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또한 기부가치 600만원 상당의 자동용접 주행장치 2대 (2 GMAW Welding Machine, 2 GMAW Automatic Welding Carriage)를 (주)동주금속이 현지 조선특화전문대학 PPNS에 기부하는 기증식 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PPNS는 (주)동주금속으로부

터 기증받은 용접기기를 자체 보유한 Welding Center에 비치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일차에는 용접기기 기부처인 PPNS와 용접기술자 양성 전문학원인 Kampuh Welding Indonesia(<https://www.kampuh-indonesia.com>)를 각각 방문하여 용접교육 현장을 지도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행사를 주관한 (주)동주금속 손윤기 이사는 “그간 서너 차례 인도네시아 방문을 거쳐 현지 조선소들의 역량을 진단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도서 국가로서 내륙 운송수요를 기반으로 한 잠재력이 크나 아직은 기술력, 자본력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며 “한국의 조선산업은 최근 불황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한국의 유휴 전문인력을 통해 단순 기술 뿐 아

니라 업계, 수주, 생산선 향상방안 등 조선소 운영 전반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 전달하여 양국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라바야무역관은 ‘KOTRA 글로벌 CSR 지원사업’ 행사를 통해 단기적으로 자동화 용접장비 보급을 통한 장비 수출 효과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산·학 협력고리를 만들어 기술교육을 수출하고, 기술인력 양성으로 보다 더 활발한 우리 조선기자재 진출 촉진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조선, 건설, 플랜트 등 전 산업에 소요되는 용접기술에 대한 현지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유관기관과 함께 이를 보다 심도있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 강구할 예정이라 전했다. <경제부>



‘현대건설 파트너’ PT TPP, 인니 고속도로 프로젝트 수주...낙수효과 기대

현대건설, 고속도로 프로젝트 협업으로 수혜 예상

‘현대건설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건설회사 ‘PTTP Bhd’가 현지에서 대형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수주, 현대건설로의 수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PTTP는 지난달 현대건설과 토목건설 관련 업무체휴(MOU)를 체결, PTTP가 이번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

대건설에 협업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PTTP는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통제청(BPJT)이 발주한 세마랑-데막 유료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총 27km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등 유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컨소시엄은 이 중 16.31km 구간을 책임진다.

지분은 25%다.

세마랑-데막 유료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총 27km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등 유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컨소시엄은 이 중 16.31km 구간을 책임진다.

PTTP의 이번 프로젝트 수주는 현대건설 입장에서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현

대건설과 PTTP는 지난달 MOU를 체결하면서 토목 관련 사업에 양사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는 도로와 교량 등 토목 사업과 항구, 광산개발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가기로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협업이나 일부 공사 위탁공사 등의 형태로 PTTP의 공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PT. HD FORKLIFT INDONESIA
Hyundai Official Agent

HYUNDAI
MATERIAL HANDLING
www.hyundai-mh.com

**25.30
35B-7A**



현대 전동지게차 경제형 모델 출시 인도네시아 최초 리튬밧데리 판매시작

2톤, 2.5톤, 3톤, 3.5톤 Counter Balance (4휠 타입)

- Economic Price : 동급 경쟁사 대비 경쟁력있는 가격
- High Quality : 현대 기술력의 고품질
- Baru Service : 검증된 무상점검 순회서비스 since 2013
- 보증기간외 현대지게차 영구 사용시까지 매2개월마다 무상점검서비스 제공



PT. HD FORKLIFT INDONESIA

Marketing PIC : Ms. Ayu (0812 9597 2720)
After Service PIC : Ms. Siti (0813-3307-7913)
Korean Desk PIC : Mr. Park (0821-2534-3214)

Korea Style Service
프로그램

바로서비스
BARU INDIA

매월 1회 무상경기점검 서비스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부품공급 48시간 이내 완료

1 무상보증기간 1년 또는 1,500시간

Free Rental 남기지연, 부품지연시 무상렌탈

구형지게차 매입서비스

한인포스트 특집연재
인도네시아 라이프스타일(5)

2019년 아시아 100대 소매 기업

<연재>

- 인도네시아판 에어비앤비, 트라밸리오와 마미고스(507호)
-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회사 소개(508호)
- 차이나 엑소더스 본격화...인도네시아로?(509호)
- 인도네시아 부동산법률회사소개(510호)
- 인도네시아 소매업시장의 대 변화(512호)

2018년 아시아의 소매 유통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으며,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아시아는 글로벌 디지털 커머스 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소비자들의 구매형태 변화는 도시화, 증가하는 1인 가구, 노령화 및 부의 증가 등 4대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업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은 아시아 지역의 유통 시장 변화와 시장 변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을 소개한 '2019 아시아 100대 유통기업(Top 100 Retailers in Asia 2019)' 보고서를 7월 3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유통 시장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모델 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100대 유통기업에서 1위는 알리바바, 2위는 징동닷컴, 한국기업 중에서는 롯데가 8위, 신세계가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세븐&아이홀딩스(3위), 이온그룹(4위), 월마트(7위) 등 오프라인 매장 기반 유통기업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기업으로는 롯데가 8위, 신세계가 10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대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기업인 쿠팡은 57위를 기록했다.

2023년 아시아 인터넷 소매 시장 규모 1조 6000억 달러로 예측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아시아 온라인 기업 대 소비자(B2C) 거래의 47%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10년 전인 2009년에 기록된 27%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바바와 징동닷컴, 라쿠텐과 같은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기업들은 폭넓은 쇼핑 옵션을 제공하면서도 안전한 결제와 믿을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성장에 힘을 보탰다. 유로모니터는 2023년 아시아 지역 인터넷 소매 시장 규모를 2018년 시장 규모의 두 배 수준인 1조 6000억 달러로 보고 있다.

조사를 담당한 이반 우즈노브(Ivan Uzunov) 리서치 매니저는 "식품이나 음료 등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했던 제품을 이제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이커머스 시장

의 성장은 도시 소비자에게 대량 구매(bulk purchases)에서 필요에 따른 구매(buy as you need)로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유로모니터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식음료 부문의 이커머스 시장 성장을 꼽으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신선 식품을 쉽고 빠르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와 이커머스에 대한 전숙함과 신뢰성이 맞물려 온라인 식품 유통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우즈노브 매니저는 "아시아 신흥 성장국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식료품점이지만,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편의점 등 보다 현대적인 유통 채널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로모니터는 향후 5년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를 필두로 아시아 가구의 거처분 소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해당 국가를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소매시장 회복 중...

현재 인도네시아의 소매시장은 과도기를 맞고 있으나, 정부는 결제 혹은 세금 신고 등을 위한 기술 활용을 빠르게 적용하여 국내 소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2016년에 세금 자진 신고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후, 소매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정부의 감시를 받을 우려로 인해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2018년, 소매업 성장률은 회복되었고, 예측 기간 동안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은 부분적으로 국민들의 기술 수용력 확대, 근접 소매 경향,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에 기인한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Indomarco Prismatama가 소유한 편의점 체인인 인도마켓은 지난해 49억 8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1위를 차지했고, 알파마트는 39억 900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유로모니터의 Dhea Sutanto는 인도마켓의 성공은 경쟁 업체에 비해 더 많은 매장 확보 및 판매 촉진 전략에 기인 한 것 같다고 전하며, "더 많은

-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Top 100 Retailers in Asia 2019' 보고서 발표
- 롯데그룹 8위, 신세계 10위, 쿠팡 57위
- 인도네시아 : 인도마켓 1위, 알파마트 2위, 마타하리 백화점 (CVC) 3위

Top 100 Companies within Retailing in Asia Pacific

Global Brand Owner	2018 Rank	2017 acts (US\$ Million)	2018 acts (US\$ Million)
Alibaba Group Holding Ltd	1	196,926	243,519
JD.com Inc	2	142,636	201,047
Seven & I Holdings Co Ltd	3	73,990	77,399
AEON Group	4	65,979	67,965
Amazon.com Inc	5	33,891	40,653
Suning Commerce Group Co Ltd	6	30,348	40,098
Walmart Inc	7	19,726	35,400
Lotte Group	8	26,762	27,413
FamilyMart UNY Holdings Co Ltd	9	25,035	26,471
Shinsegae Co Ltd	10	22,518	25,396
GOME Electrical Appliances Holding Ltd	11	15,976	19,454
Auchan Group SA	12	15,576	16,618
Lawson Inc	13	15,306	16,477
China Resources Holdings Co Ltd	14	15,656	15,871
Vipshop Holdings Ltd	15	12,842	15,854
Rakuten Inc	16	14,837	15,456
Yamada Denki Co Ltd	17	14,341	14,843
Japan Consumers Cooperative Union	18	14,384	14,783
Fast Retailing Co Ltd	19	13,226	14,641
Pinduoduo Inc	20	4,293	13,649

Top 10 Companies within Retailing in Indonesia

Global Brand Owner	2018 Rank	2017 acts (US\$ Million)	2018 acts (US\$ Million)
Sumber Alfaria Trijaya Tbk PT	1	5,313	5,389
Indoritel Makmur Internasional Tbk PT	2	4,718	4,721
CVC Capital Partners Ltd	3	1,311	1,312
Trans Retail Indonesia PT	4	1,225	1,161
Dairy Farm International Holdings Ltd	5	893	1,001
Alibaba Group Holding Ltd	6	646	911
Erajaya Swasembada Tbk PT	7	677	712
Matahari Putra Prima Tbk PT	8	758	709
Ramayana Lestari Sentosa Tbk PT	9	580	574
Ace Hardware Corp	10	437	488

소비자와 더 많은 매장에 다가갈 수 있다면 자동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 할 것입니다. 특히 도달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접근성을 제공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마켓은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 15,633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알파마트는 13,991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마타하리 백화점 (Matahari Department Store)

은 13억 6천만 달러의 매출로 3 위를 차지했고, Trans Retail Indonesia의 까르푸 (Carrefour)와 트랜스마트 까르푸 (Transmart Carrefour)가 12억 2천만 달러를 벌어 들었다. 5 위는 Hero Supermarket Group, Guardian, Star Mart 및 Giant를 운영하고 있는 Dairy Farm International의 매출액은 9억 3천만 달러였다.

<경제부>

PT Pertamina, 2019년 Fortune Global 500에서 175위에 등극

-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Pertamina 이름 올려
- 미국 212개, 중국 119개...한국은 16개 기업



Hero 그룹은 2015-2019년 매장 수는 모두 284개 가운데 7월에 서부 자와주 대백화 벼까시에 있는 6개 Giant 매장이 폐쇄됐다.

폐업은 다양한 소매회사가 생존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Hero Group 외에 PT Mitra Adiperkasa, Tbk (MAP),

Matahari Department Store 가운데 336개 매장이 폐쇄되었지만

321개 매장은 개업했다. Matahari 백화점 3곳이 폐쇄되었지만 자와섬

외곽에 24곳에 개장이 개업되었다. 그러나 7-eleven, Disc Tarr,

Aquarius 회사는 폐업되었다.

며, 브르파미나는 다른 세계적인 회사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는 것 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2018년 브르파미나는 총 매출 579억 3천만 달러를 달성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34.9퍼센트

증가한 규모이다. 순이익은 25억

2천만 달리이며, 총 자산은 647

억 달러, 직원 수는 31,569명이다.

한편, 중국 기업들이 세계 경

제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

며 급성장했다. 올해 Fortune Global 500 리스트에 따르면,

212개 기업이 이름을 올린 미국

과 대등하게 중국은 119개의 기

업이 리스트에 올랐다. 또한 중국은 상위 10위에 3개 기업이 리스트에 올라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최다 보유국가가 되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전년 대비 3단계 내려간 삼성전자(15위)를

비롯하여 SK홀딩스(73위), 현대 자동차(94위), 포스코(171위) 등

총 16개 기업이 2019년 Fortune Global 500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 기업 중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기업은 전년 대비 107단계가

올라간 SK하이닉스이다.<경제부>



한상재의 누산따라 뉴스데스크

NUSANTARA NEWS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아드하 희생제와 독립기념일

다음 주는 휴일이 끼어 있는 주간입니다. 11일 일요일은 이들 아드하(Adha)라고 해서 무슬림들이 자기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희생제를 드리는 날이고 17일 토요일은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내 곳곳에 희생제로 드릴 소나 염소를 매달아 놓고 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두 아들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Ismael)은 서자고 이삭(Isak)은 정실 아들인 것이 다른 것입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만 이슬람들은 이브라힘(Ibrahi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지난 주말 밤 빨라부안 라투(Pel. Ratu) 남쪽 깊은 바다에서 진도 5.0 규모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반텐(Banten)주 레박(Lebak)과 심지어 자카르타까지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앙지에서 자카르타까지의 거리만 보면 약 160km 이상 떨어져 있고 그것도 바다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자카르타까지 그 진동이 전해지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텐(Banten)주는 자카르타까지 잠시나마 진동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카르타를 뒤흔든 지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자카르타는 지진이나 쓰나미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반동 바랏(Bdg Barat)과 수방(Subang)군 사이의 팡꾸판 푸라후(Tangkupan Perahu) 화산, 일명 반동 화산이 200미터가 넘는 화산재를 뿜어 올렸습니다.

정치권 논공행상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연합선거 대책본부를 둘러싼 논공행상 소문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연정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일하는 인도네시아 연정팀, 즉 KIK를 해산하고 있습니다.

KIK를 둘러싼 소문은 브라보워(PRBW) 그린드라(Gerindra) 당 총재가 지난 24일 메가와띠(Megawati) PDIP 총재를 만나고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연정을 하고 있는 나스뎀(Nasdem) 수리야 빨

마치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온 산을 눈이 온 것처럼 윤통 하얗게 만든 것입니다. 주말을 기해 화산 주변 2km 반경 주민들을 대피시켰지만 주변에 쌓인 화산재를 다 치우고 오는 8월1일부터 개장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은 당분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비가 내린 날은 매우 미끄럼기 때문에 자동차로 정상까지 올라 갈 때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PAN 당은 이미 선거 직후 조코위 대통령에게 바짝 엎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KIK 고위직 멤버들은 PDIP 당의 승인도 없이 논공행상을 위한 미팅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지금 연정도 연정이지만 차기 내각 구성을 놓고 치열한 로비와 힘겨루기를 벌이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길어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연정체제는 쉽게 깨지게 되고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모크릿(Demokrat) 당의 아구스 하르묵티 유도요노(Agus Harumukti Yudoyono) 당무공동위원회장은 조코위 대통령을 만나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 논하기도 합니다. 국가수권당으로 해석되는

8가지 전기차 인센티브

재무부는 전기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8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센티브에 관한 법령을 발급한다.



관세 인센티브

정부는 완전조립생산(CKD)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에게 특정기간에 관세 인센티브를 준다.



Tax Holiday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와 협력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에게 소득세(PPh) 면제 인센티브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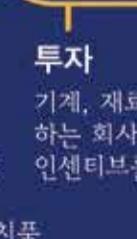
세금공제 (Tax Allowance)

전기차 부품과 차량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게 세금공제 인센티브를 준다.



사치품판매세 (PPhnBM)

전기차는 사치품 판매세가 면제되지만 기타 차량은 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사치품 판매세를 부과한다.



투자

기계, 재료 수입을 하는 회사에게 수입세 인센티브를 준다.



2019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원자재 등 수입세를 정부가 부담한다.

기타 인센티브

전기차와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전기충전과 전기충전소(stasiun pengisian kendaraan listrik umum + SPKLU) 공사



한인포스트 디자인

인도네시아 원자력 발전

인도네시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는 30년 동안 원자력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마주 문두르(Maju Mundur), 즉 오락가락만 계속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규정 조차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인도네시아는 벌써부터 중부자바 제빠라에 1㎿ 가와트 금의 원자력 발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제빠라 이

외에도 방카에 600㎿가 와트, 서부 칼리만탄에 100㎿에서 1기 가 와트 금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탕상성 조사를 하는 중이긴 하지만 누사 펜가라 바랏(NTB)도 적지로 꼽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적지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내진에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글: 한상재/ 칼럼리스트

어쨌든 전세계 원자력 발전은 전체 전기 소요량의 11%나 된다고 합니다.

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를 보면 주로 전기, 통신, 가스, 물, 교통분야, 청고업, 기계 및 금속분야, 광산개발, 부동산 및 공단개발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라고 합니다. 고젝(GoJek), 또 코페디아(Tokopedia), 부까라빠(Buka Lapak), 그리고 트레블로카(Traveloka)까지 모두 싱가포르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순수 인도네시아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홍콩(HK)이고 그렇게 급상승하면서 중국 투자는 그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 감소세

투자청 BKPM은 2019년 전반기 투자율이 전년도 투자비 74%와 비교해 볼 때 2% 증가하여 94%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투자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경제가 다른 나라경제보다 좀 낫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만 보면 투자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 134% 대비 많이 줄어 들어 3%

중국, 인도네시아 투자실적 줄어

최근 BKPM이 1분기 투자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실적이 많이 가라앉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대 투자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홍콩(HK)이고 그렇게 급상승하면서 중국 투자는 그 다음으로

로 홍콩(HK)과 투자순위가 뒤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중국 투자가 주춤하는 것은 자국내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는 유니콘(Unicorn) 회사는 4개지만 모두 싱가포르 회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즉 AMM 방콕(BKK) 회의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좀 수동적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4차 방콕 아세안 회의 이후부터 아주 상반된 외교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캄보디아에 두려고

하는 중국 군사기지 이슈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남방 진출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인도-태평양 라인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의 균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뜨갈 멜라띠 수출

중부자바 뜨갈(Tegal) 농민들이 멜라띠(Melati)라고 하는 꽃을 따 말련과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중동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멜라띠(Melati)라는 것은 아주 작은 잎으로 마치 우리나라 도장나무와 비슷한데 흑고 등근 모양

의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향이 강하기 때문에 손님맞이 꽃 목걸이와 결혼식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마침 뜨갈(Tegal) 농민들이 멜라띠를 많이 심어 빼깔통안(Pekalongan)이나 족자, 솔로, 찌레본, 수라바야, 자카르타 등지로 팔아 왔는데 이 꽃을 수입하려

는 바이어가 크게 늘어나 재배면적을 더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판매 가격도 괜찮은 편인데 kg 당 2만 루피아에서 15만 루피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량은 4헥타에 심었을 경우 2억에서 2억 5천 루피아를 벌 수 있다고 하니까 헥타 당 5천만 루피아는 벼는 셈입니다.

디지털 세계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인도네시아

- 소프트뱅크 그룹, 그랩(Grab)에 20억 달러 추가 투자
- 인도네시아의 AI, 전기자동차 생태계 개발
- 현대자동차와의 협업 모색 중

지난 월요일 소프트뱅크 그룹(SoftBank Group)의 손정의 회장은 조코위 대통령을 예방한 후, 인도네시아의 인공지능(AI), 지오맵핑(geo-mapping) 솔루션 개발, 헬스케어 및 전기자동차 분야의 디지털 생태계 개발을 위해 그랩(Grab)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과 손정의 회장은 회담에서 기술 분야 투자를 통해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등 향후 몇 년 안에 '동남아 최대의 디지털 경제대국 인도네시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투자는 그랩(Grab)의 제2 본사를 자카르타에 설립하여 향후 5년 간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소프트뱅크는 이미 올 해 3월에 14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이다.

그랩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18년 경제 기여도는 35억 달라고 밝히며, "그랩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랩은 자카르타에 제2의 본사를 설립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주변 경제 신흥국가들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잘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랩 인도네시아 사장인 리즈끼 끄하마디브라따(Ridzki Kramadibrata)가 말했다.

그랩의 인도네시아 본사는 자카르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센터와 동남아 최대 음식 배달 서비스인 '그랩푸드(GrabFood)' 사업을 위한 그랩의 제2본사가 될 전망이다.

그랩 제2본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랩-쿠도(Grab-Kudo)' 애이전트 같은 소규모 기업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 그랩은 동남아의 다른 신흥 경제국에도 관련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랩 측은 "두 번째 본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천 명의 고용 기

회를 창출하고, 현지 주요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랩은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이자, 최대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와 관련 손정의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기술 분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랩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랩 인도네시아 사장인 리즈끼 끄하마디브라따(Ridzki Kramadibrata)는 이번 소프트뱅크와의 전기자동차 생태계 개발은 그랩의 여타 투자자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부>

금주의 詩

미 소

막히는 서울 춘천고속도로
이쯤이야 하며
만성 교통체증 Pantura 고속도로가 생각이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서울은 나뭇잎의 색이 가장 진한 7월인데
야자나무 진한 녹색이 눈에 익어
산이며 가로수며 온통 연두색으로 보여
혼자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고요한 가평의 아침 기온은 19도
얼마 만에 이렇게 시원한 거지?
연중 무더운 찌꺼랑에서 해방
입가에 떠오르는 미소

분명 나는 변했다
내 안에 있는 그 덥고 눈부신 적도의 나라
당연했던 것들의 생소함이 특별하게 느껴져
혼자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한화경/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 시작노트 >

인니에서 생활하시다 가끔 한국에 돌아오시면 어떻게 느끼시는
지요?

1년만에 첫 귀국한 저는 눈부신 인니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인니에서 이정인처럼 느끼며 살았지만 1년 세월 동안 정
이 좀 들었나 봅니다. 생활 속에서 사소한 내용들이지만 인니를 떠올리
며 혼자 입가에 미소 짓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니가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신 분들과 공감해 보고싶어서 표현해 보았습
니다. 인니 덕분에 당연했던 일들도 특별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소중한 체
험을 하고 있습니다.

CERAGEM



세라젬 척추온열마사지로 달라지는 내일!

세계에서 매일 250만여 명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라젬은 세계 70여 개국, 2,500여 개의 대리점을 운영중인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매일 250만여 명의 고객분들께서 세라젬 척추온열의료기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과 함께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 20년 역사 의료기기 전문기업 세라젬
- 인체의 중심 척추관리를 위한 척추온열의료기기 개발(1999년)
- 체험마케팅을 통한 세계 70여개국 네트워크 구축
- 척추온열의료기 글로벌 누적판매 250만여대, 연계 1위!

상담문의 0811 9593 111



Bridge Language Center

Pusat Jembatan Bahasa

Jl. Ganischa Blvd, RT.005/RN.008, Desa Pasirranji, Kecamatan Cikarang Pusat,
Kecamatan Bekasi, Provinsi Jawa Barat, 17539

Tel: 62-821-2213-2733 / Webpage: blc-eduplus.net

찌꺼랑 메인캠퍼스

BLC 자카르타

자카르타 비파 졸업식

자카르타, 찌꺼랑 필드트립

(1) 회화, 문법 집중반

- 기간: 2019년 7월 22일 ~ 8월 23일 (5주-75시간)
- 시간: (월-금) 9:00am -12:15pm
- Rp. 5,500,000

(2) BIPA 초급, 중급

(말하기/듣기/읽기/쓰기/문법)

- 기간: 2019년 9월 2일 ~ 12월 20일 (16주-240시간)
- 시간: (월-금) 9:00am -12:15pm
- Rp. 16,000,000

(3) 개인과외 문의 가능

BIPA PROMOTION!

2019년 가을학기부터 수업료 인상과 더불어 색다른 변화로

BLC BIPA 인도네시아 수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첫째: Early Bird 혜택 (수업료의 7% 할인혜택) - 6월 한 달만

둘째: invite friends! (수업료의 5% 할인혜택)

셋째: 연달아 비파 수강시 할인 혜택 (수업료의 5% 할인혜택)

넷째: 재수강 할인 (수업료의 30% 할인혜택)

신청문의

+62-812-304-1294

자카르타 캠퍼스 담당자

+62-813-8237-7062

BLC 전체 담당자

라면사리까지 더해져 한끼 식사로 손색없는
청기와 부대찌개! 지금 바로 식당으로 오세요~.

(*) 가격은 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청기와 상품권 출시!

고마운 마음을 청기와 상품권으로 전해보세요.

상품권 종류 50만 루피아, 100만 루피아

상품권 특징 본 상품권은 청기와, 청기와 테라스,
청기와정육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인포스트 캠페인 "9505 건강한 한인사회를"

사랑의 전화

9505는 95% 한인이 경제적으로 낙오된 5%의 한인들을 돌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인동포분들에게 힘 내시라고 십시일반으로 동포들과 기업인들의 후원으로
쌀과 라면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나눠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sms : (천사 구구구)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0812-1004-999**

126개월째 300여명에게 사랑나눔을

"건강한 한인사회를 위한 우리 동포의 헌신에 감사"

- *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쌀 5~20kg, 현지라면, 생활필수용품 1박스/ 매월
- 기타 - 학자금 및 생활자금

** 배달문의 : 0819-3272-4757 신국장

배달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10개 지역으로 나눠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 : 2019년 6월 28일(금) 오후 2시 ~ 4시 <포장 봉사를 원하시는 분 전화주세요>

* 장소 : 미원 본사 (021-470-4280) * 필요인원 : 10명 (사전예약 0819-3272-4757 신국장)

양칠성, 그는 누구인가

세미나: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서 한국인(양칠성)의 역할



그는 1942년, 일본군 군속 포로감시원으로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후 인도네시아 독립군에 합류해 네덜란드군에 대항합니다.

1949년 8월 10일, 처형장에서 적백기 옷을 차려입고 머드레카(Merdeka)를 외쳤던 사람. 하나 항일투사는 아니었던...

그는 지금 가룟 영웅묘지, Tenjolaya에 잠들어 있습니다.

<Historika Indonesia>는 영웅의 날인 11월 10일, 가룟에 <잘난 양칠성> 명명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19년 8월 16일 (금)
09:00~12:00 토크쇼 "한국인의 삶과 학문"
13:00~16:00 세미나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서 한국인의

역할"에 관한 역사 세미나 (1946-1949)
장소 : Auditorium Gd. 9 Fakultas Ilmu Pengetahuan Budaya (FIB)

Universitas Indonesia
접수 벤드댓글 : <https://band.us/@ikcskr>
SMS/KT : 0838-7834-7811, 0816-190-9976
Email: ikcskr@gmail.com

<입찰공고>

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 비누스 대학교 코리아코너 개설 사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비누스 대학교 코리아코너 개설 사업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2019년 10월 28일(월)
- 추정금액 : 일금오억오천만루피아
(Rp.550,000,000) / 세금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참조.
- 입찰일정
- 공고기간: 2019년 8월 01일(목)~2019년 8월 13일(화)
- 서류제출
- 접수마감: 2019년 8월 13일(화) 12:00까지(WIB)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접수기간내 도착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서 5부 및 제안서 수록 전자파일 1세트
※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접수처 : Equity Tower 17th Fl. Jl.Jend. Sudirman, SCBD, Lot 9, Jakarta, 12190

Korean Cultural Center 담당자 박호진(021-2903-5650)

○ 입찰선정위원회 개최 : 2019년 8월 14일(수) 10:00부터

※ 장소는 추후 공지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19년 8월 14일(수)
※ 문화원 홈페이지에 공고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배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합니다.
-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참고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서서약서 제출
-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6. 문의처

- 담당자: 박호진 021-2903-5650/
hojinpark16@gmail.com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8월 01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장

한국 일간지/주간지/월간지 구독 안내

+ 보너스 : 한인포스트. 주요 인니간행물
<자카르타 기준>

격일(월수금) 배달 월 90만 루피아

* 무역부 검찰청 관세청 간행물 당일 통관허가 품목

- ▶ 일간지 :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일간스포츠
전자신문
- ▶ 주간지 :
주간조선 주간한국 주간매경 이코노미스트
한겨레21 시사저널 시사in
- ▶ 월간지 :
신동아 월간조선 주부생활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과학동아 소년조선 styler 리빙센스

원하시는 한국의 모든 일간신문/주간지/학습지를
인도네시아 어디든 배달해 드립니다.

신문사업자 허가업체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CV. Tiga Bintang Jaya

구독문의
HanInPost
한인포스트

0812-1004-999

카톡아이디 haninpost

021-4586-9199(대) haninpost@gmail.com

문의전화

KITA coex **JIPREMIUM2019** **Stylish Life in Jakarta**

2019. 11. 7 ~ 9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CC 전시장 훌 A, B

시 간 10:00 ~ 18:00 주 최 Coex, KITA

인도네시아 유일의
프리미엄 소비재, 선물용품
및 리빙 용품 전시회

300 개사 320 부스 20,000 참관객

전시품목

- 판촉/선물
- 주방/홈웨어
- 홈/인테리어
- 미용/화장품
- 패션/액세서리
- 베이비/키즈
- 문구/사무
- 프리미엄 식품군
- 스마트·가전/IT

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프리미엄 부스
조기신청 (~2019년 5월 31일)	260만원	290만원	400만원
일반신청 (~2019년 8월 30일)	290만원	320만원	430만원

Organizer coex KITA Coopera Kotra Local Partner

JIPREMIUM 사무국 T. +82-2-6000-8128 E. jipremium@coex.co.kr
(인도네시아 문의) : 한인포스트 +62-02-4586-9199(대)
Http://0812-1004-9999(대) E. haninpost@gmail.com

고객의 건강과 지역 일자리 살리는 3H 지압침대



(주)쓰리에이치를 창립 5년 만에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키운 정영재 회장

“창립 5주년, 올해 매출 목표 4백억원, 고객 사랑이 성장의 밑거름이죠”

대구광역시 (주)쓰리에이치 본사. 복도 끝으로 힘찬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무리의 군인들이 이열종대로 등장했다 곧 어디론가 사라졌다. 지압침대를 만드는 회사에 제복을 갖춰 입은 군인들이라니, 도무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조합이었다. 의문은 (주)쓰리에이치 정영재(59) 회장의 설명을 듣고서야 풀렸다. 앗된 얼굴의 군인들은 전역 후의 진로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사들이었던 것.

업체 대표 자격으로 한국은행이 창립 69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대구경북 지역경제 세미나 포럼에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고요.”

불과 5년 전 초기 자본금 5천만원, 5명의 직원들과 비가 새는 1백30평짜리 임대공장에서 양동이를 받쳐놓고 시작한 그의 사업은 같은 해 매출 3억9천만원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을 수상했다. 설립 8개월 만에 2백40평짜리 공장으로 자리를 옮긴 회

1만 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회사로

“저희 회사는 지난해 대구시에서 주는 고용증진대상 대구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구·경북 지역 기

업체 대표 자격으로 한국은행이 창립 69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대구경북 지역 경제 세미나 포럼에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고요.”
불과 5년 전 초기 자본금 5천만원, 5명의 직원들과 비가 새는 1백30평짜리 임대공장에서 양동이를 반쳐놓고 시작한 그의 사업은 같은 해 매출 3억9천만원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을 수상했다. 설립 8개월 만에 2백40평짜리 공장으로 자리를 옮긴 회사는 2년 후 대구신서혁신도시 내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공장부지를 분양받아 체험관까지 갖춘 본사 건물을 세웠다. 해외에서의 관심과 반응도 뜨겁다. 2014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까지 수출하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해 2016년 '대한민국 무역의 날 수출탑'과 '대구경북 올해의 중소기업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에는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 : HIT 브랜드 부문', 2018년에는 '2018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대한민국정부 국가생산성대회 강소기업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매출 목표는 4백억 원. 정 회장은 상반기 매출 성과가 좋다면 무난한 목표 달성을 확신했다.

“창업 당시 직원들에게 ‘언젠가는 꼭 1만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로 키우겠다’ ‘한 달에 1만 개의 침대를 파는 회사가 될 거다’ 다짐했습니다

다. 직원 5명에, 한 달에 5개도 못 팔 때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허무맹랑하게 들렸을 이야기가 불과 5년 만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센터(대리점) 한 곳에만 도 최소 5명이 근무를 합니다. 센터 2백 개가 설립되면 1천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능성 침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동종업계 최초로 렌털 서비스를 시행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집에서 매일 침대에 편안히 누워 3H 지압침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에 바쳐온 정 회장의 뚝심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지금은 고인이 된 지인으로부터 3H 지압침대 관련 특허권을 인수받은 그는 이후 제품 상용화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2014년 법인 설립 후 온열침대 발명특허를 비롯해 척추경혈용 지압장치 등 각종 발명특허 획득과 함께 CQC·ISO9001 인증, 2016년 동종업계 최초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지정 등의 성과가 그간의 노력을 입증한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라돈 등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소재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제품 하나하나의 공정을 모두 본사 직원들이 손으로 완성하는 고집스러운 작업 방식 또한 42개월 무상AS를 자선 할 정도로 고장 없이 튼튼한 침대를 선보일 수 있는 비결이다.

지압을 받으며 숙면 취할 수 있는 마사지방법

3H 지압침대

마사지나 지압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지만 대부분이 비싸고, 매일 찾아가기도 번거롭다. 3H 지압침대는 수면 중 편하게 지압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3H 지압침대에는 62개의 지압봉이 있다. 사용자가 누워 있으면 지압봉이 위로 올라와 수직 방식으로 척추와 관련된 근육들을 눌러준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눌러주듯 마사지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바쁜 현대인들,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분들에게 만성 피로는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는 숙명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역에 있는 저희 센터를 방문하셔서 20분 정도만 체험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3H 치압침대는 한방의 추나 요법과 서양의 카이로프랙틱 요법을 결합한, 특허 받은 의료기기입니다. 척추만곡에 따른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 건강은 물론 전신의 순환계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를 찾아와 센터 오픈을 문의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고 그 효과를 확인한 이들이다. 축구선수 이동국에 이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이응경·이진우 부부도 직접 3H 지압침대를 체험해보고 효과에 믿어 모델을 자처한 케이스다.

창립 5주년, 고객 사랑에 보답하는 사은행사 열어

3H는 6월 1일부터 지압침대 구매 고객 선착순 3천 명에게 추첨을 통해 제네시스 자동차를 비롯해 LG디오스냉장고, LG트롬 스타일러, 3H 지압침대 킹(3H-1530), 3H 지압침대 더블(3H-1300), 3H 와이드 쇼파(3H-920WS) 등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말 감사하죠.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도 5년 만에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희 3H 지압침대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 덕분입니다. 매년 이렇게 큰 이벤트를 열 수는 없지만 창립 5주년인 올해만큼은 고객께서 주신 큰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연락처, Hp. 0878-02020-333
Kakao ID: 3H333, Youtube: 3H Pijat Bed
www.3hk.co.kr

